

(漢城新報)를 읽었다고 했다. 이 날의 일기에서는 독일, 러시아, 일본, 영국이 청국의 몇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영국 군함이 목포에 정박하면서 거문도를 엿보고 있다는 기사를 옮기고서 “탄식할 만하다(可嘆)”는 평을 덧붙였다. 일본을 포함한 열강의 침략이 이어지는 상황임을 인식한 상황에서 유배의 길에 오른 것이다.

유배지 제주도에서 들은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은 일본과 곧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었다.<sup>19)</sup> 이 소문은 제주도에 널리 퍼진 것이었던 듯한데, 방성칠과 같은 인물까지도 대강의 사정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던 정도였다.

방성칠—곧 일명 방갑이다—이 유배객 최영순, 김낙영을 초청하여 함께 일을 도모할 것을 요청하니, 최영순과 김낙영이 허락하는 체하였다. 방성칠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는 방성(房星)의 분야에 속하고 내 성이 방이니, 서로 부합합니다. 또 비기(秘記)에는 방(房)과 두(杜)의 장수라는 말이 있는데, 또한 내 성과 부합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의 운수는 이미 쇠하였고 진인(真人)은 마땅히 섬에서 나올 것이니, 이 기회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주의 유배객들이 지금처럼 많았던 때가 없으니, 이는 문무(文武)가 함께 갖추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나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다투고 조정에는 일이 많으니, 여기에 군사를 보낼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온다 하여도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sup>20)</sup>

19) 『속음청사』상 1898년 3월 3일, p. 457. “日·俄將不免開仗云.”

20) 『속음청사』상 1898년 3월 4일, p. 457. “房七星[卽甲一名]招謫居人崔永淳·金洛榮, 要與同事. 崔·金皆佯許. 房曰, 濟州房星分野, 吾姓房, 與之相符. 且秘記有房·杜之將, 亦與吾姓相符. 此非天耶. 今國運已衰, 真人當出於海島, 此機不可失也. 且濟州謫客之多, 未有如今日, 文武俱修, 此天贊吾事也. 今日·俄相爭, 朝廷多事, 未暇派兵來此, 雖來不足畏也.”

남학당(南學黨)의 일원인 방성칠은 육지에서 온 사람이니, 섬의 주민들과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다고 할 만하다. 특히 남학당이 동학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와 일본이 경쟁하던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일기에서 러시아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 김윤식 개인이 러시아와 악연이 있다는 점도 일부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미 갖고 있었던 부정적 인식이 이어진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청나라 황제의 독살에 관여했다는 소문, 유인석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서북 지역에 큰 비극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청나라나 한국과의 밀약을 통해 영토를 점유하려는 음모를 감추고 있다는 이해 등은 사실과 거리가 먼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서술되곤 한다. 김윤식이 러시아의 속셈에 대해 판단한 다음의 서술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생각건대 이 회담(네덜란드에서 개최한 열강의 평화회담)이 유명 무실한 것은 러시아의 농간 때문이다.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여러 나라에서 군대를 움직이면 철도 공사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하여, 러시아에서 잠시 이를 빙자하여 군대를 쉬도록 하게 한 것이다.<sup>21)</sup>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문제, 즉 러시아와 일본의 개전 여부에 대해서는, 김윤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사실 일본과 청나라,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일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영선사 활동 시기부터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근심한 바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들은 소식들은 이러한 근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일본인 순사들과 대화한 이후에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

21) 『속음청사』상 1899년 4월 12일, p. 506. “想此會有名無實，蓋緣俄國之愚弄，恐西比利亞鑄路未竣之前，諸國動兵，有妨鑄路之役，故姑藉此息兵。”

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재수의 난이 정리되던 시점의 일이었다.

이로 보건대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반드시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 또한 전함을 크게 늘리고 있고 이미 청나라 북부에 육군 3만 명을 수송하였으니, 전쟁이 일어날 형세는 이미 현저한 것이다. 북경의 강화회담이 결말이 난 후에는 개전의 설이 나타날 것이다.<sup>22)</sup>

## 5. 지도(智島) 유배기의 기록: 러일전쟁과 러시아 혁명

김윤식의 유배지가 옮겨진 직접적인 계기는 이재수의 난이었다. 제주도 유배객 가운데 일부가 민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고, 나머지는 전라도 지역의 섬들로 유배지를 옮기는 처분을 받았다. 김윤식의 유배지로 정해진 지도(智島)는 목포 인근에 있는 섬인데, 목포 지역에는 다수의 일본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때문에 김윤식은 서울에서 전달된 편지나 신문 뿐 아니라 현지의 일본인들에게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시기에도 러시아에 대한 김윤식의 관심은 거의 일본과 연결되고 있었다. 지도에 도착한 지 10여 일이 지난 1901년 7월 25일의 일기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크게 부각된 국제 정세를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떠올리고 있는데,<sup>23)</sup> 이는 일종의 한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관심사나 인식의 방향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22) 『속음청사』상 1901년 6월 5일, p. 584. “以此觀之, 日俄之間, 必不能無事, 俄國亦大増戰艦, 已運陸軍三萬于北清, 戰形已著, 俟北京媾和談辦出末後, 有關戰之說.”

23) 『속음청사』상 1901년 7월 25일, p. 596. “(아들이) 『황성신문』을 빌려서 보내주었다. 나라 안에 가뭄이 극심하여 경기와 호서 지방은 붉게 변하였고 공주와 군산은 더욱 심하다고 한다. 그런데 경성과 부산만은 비가 충분히 내린다고 한다. 이 두 곳은 일본,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이니, 또한 기이하도다(借送皇城新聞. 邦內旱憂太甚, 圻湖赤地, 公州·群山尤甚. 惟鏡城·釜山雨足, 此兩處隣接日·俄之地, 亦可異也).”

[표 3] 러일전쟁 이전의 지도 유배기 러시아 관련 기록

일자	출처	주요 내용
1901. 9. 5	황성신문	러시아·일본의 밀약설(만주·한국 점령의 상호 인정)
1901. 11. 6	편지	러시아에 예측된 만주 풍경(일본의 한국 점령 연상)
1902. 1. 28	편지	원세개 집권 이후의 만주 상황(러시아/일본의 대응)
1902. 2. 26	편지	영국과 일본의 압박에 의한 러시아의 만주 철군
1902. 3. 13	편지	영일협상 공포 북경에서의 환영(러시아는 인심 잃음)
1903. 5. 13	윤주찬(尹株贊)편지	삼림 문제로 인한 개전설
1903. 5. 21	황성신문(13~19일)	러시아 의주로 파병. 일본의회의의 개전 결의
1903. 5. 26	황성신문(20~26일)	러시아의 청국 압박. 일본은 동정을 살핌
1903. 6. 4	황성신문(29~4일)	의주, 용천 지방에 러시아 병사 주둔
1903. 7. 4	일본인편지(정운복)	일본 조정에서의 개전 결의 소문
1903. 7. 8	황성신문(5~9일)	개전 결의의 설
1903. 7. 18	황성신문(17일)	일본, 러시아의 북경 담판(만주 문제)
1903. 8. 13	황성신문(11~15일)	일본과 러시아의 개전 준비
1903. 9. 14	신문(14~18일)	개전설과 만한교환설(滿韓交換說)
1903. 10. 3	편지	개전설로 인한 국내의 소동(소를 잡아먹는 사람들)
1903. 10. 9	황성신문(9~12일)	개전의 기미
1903. 11. 8	편지	개전 소문으로 인한 국내의 물가 상승
1903. 11. 11	신문(3장)	화평의 조짐이 있으나, 러시아 병사는 계속 주둔
1903. 11. 14	황성신문(18일)	화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1903. 12. 8	황성신문(10~14일)	일본 정부 내의 개전-화평 논의
1903. 12. 29	황성신문(1~5일)	일본, 청국, 러시아의 입장
1904. 1. 12	편지	청나라에서의 일본 원조 분위기
1904. 1. 19	황성신문(21~24일)	서울의 분위기(임진란 때 울린 북이 울림)

## 5.1. 러시아·일본의 갈등과 개전설(開戰說)

지도 유배 초기에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갈등과 경쟁이 심해지고 있었다. 『음청사』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형세 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화평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한국이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편지와 신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은 개전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려주는 쪽이 우세한 듯하지만, 때로 화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는 희망 사항도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마무리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윤식은 만한국환설(滿韓交換說) 즉 러시아가 만주를 차지하고 일본이 한국을 차지한다는 밀약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밀약이 체결된다면 한국이 일본에 예속될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김윤식은 일본이 러시아보다는 낫다는 생각과 결국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함께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sup>24)</sup> 이때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 사실일 듯하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일본을 돕겠다는 중국인들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은, 이러한 인식과도 연관된 것일 듯하다.

한편으로는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내부의 상황에 대한 묘사도 일부 나타나는데, 그 장면은 적어도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비극적으로 이

24) 『속음청사』상 1901년 11월 6일, p. 608. “만주에 있는 청국인들은 러시아인에게서 혹독한 노역과 세금을 요구받고 있다. 살아갈 방도가 없어 소리만 지를 뿐이니, 비참하여 차마 볼 수가 없다고 한다. 장래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러시아인의 흉폭함보다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얼마나 되겠는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淸人之在滿洲者, 被俄人虐使苛斂, 無以聊生, 呼號顛連, 慘不忍見. 將來日人之待我人, 縱云稍勝於俄人之凶暴, 然相去幾何, 可慨也已).”

해될 만하다. 한 가지 예를 제시한다.

금년 추석에는 마을마다 소를 잡는데도 고기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민간에서는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 것이라는 설로 인하여 공연히 소동이 일어나니, 여기저기서 소를 잡아서 먹곤 한다. 또한 가소로운 일이다.<sup>25)</sup>

관료들이 일본이 강한지 러시아가 강한지를 생각하며 한국이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는데,<sup>26)</sup> 백성들은 눈앞에 다가온 전쟁의 소식을 접하고는 키우던 소를 잡아먹는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고 생업의 자산인 소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물일 수 없음을 짐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물가는 오르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만 간다. 임진란 때 올린 북이 다시 올렸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혼란은 더욱 깊어진다. “가소로운 일”이라는 판단은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일종의 탄식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식은 스스로 어떤 책임을 느끼거나 대책을 생각해내지는 못한다. 근심과 무력감만을 보여줄 뿐이다.

## 5.2. 러시아·일본의 개전과 전황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이후, 김윤식은 전쟁 상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일기에 기록했다. 『황성신문』 이외에도 『대동신보』, 『대한일보』 등 일본인이 발행한 신문들을 함께 언급하였으며,<sup>27)</sup> 목포 인근의 일본인들로부터 전해진 소문 또한 자주 거론하였다.

25) 『속음청사』하 1903년 10월 3일, p. 60. “今年秋夕, 村村宰牛, 而肉價一向高騰. 民間以日俄交仗之說, 空然騷動, 爛漫宰牛而食之. 亦可笑也.”

26) 『속음청사』하 1902년 3월 13일, p. 8.

27) 『대동신보』(大東新報)는 1904년 4월에 일본인 기쿠치 겐조(菊池謙讓)가 서울에서

[표 4] 러일전쟁 시기의 러시아 관련 기록

일자	출처	주요 내용
1904. 2. 3	황성신문(7~10일)	일본의 개전 방침과 각국의 중립 표명
1904. 2. 9	일본인편지(정운복)	목포의 신문에 실린 개전 소식
1904. 2. 10	현지 소문	일본의 지계 제작 소문(한국인을 이용한 운송 목적)
1904. 2. 11	편지(정운복)	일본인이 전하는 일본 승전의 소식
1904. 2. 15	뱃사람(충청도)	해전의 풍경
1904. 2. 23	일본인편지(정운복) 및 목포신문 호의	개전 초기의 전황
1904. 2. 29	황성신문	12월 26일~1월 8일. 이미 들은 바와 같은 전황. 일본 보호국의 가능성에 대한 소문
1904. 3. 2	정운복 (원출처 일본인)	미국, 영국, 청국에서의 자발적 기부 “공전(公戰)”, “의전(義戰)”으로 칭송하는 세계 여론
1904. 3. 5	황성신문(9~11일)	고종의 일본군 지원, 러시아 내부의 반란 조짐
1904. 3. 13	황성신문(15~18일)	한반도에서의 육군 충돌 조짐, 러시아에 불리한 여론
1904. 3. 28	편지	알렉세예프의 호언장담과 패전 영국신문의 ‘일본보호국’ 언급
1904. 4. 6	황성신문(10~15일)	러시아 황제의 친정설(親征說)
1904. 4. 14	장운선(방문객)	정주의 전황. 러시아군에게 피살된 의주 백성들
1904. 5. 8	편지, 황성신문, 한성신보	러시아의 위법 행위와 패배 일본군의 삼엄한 군기(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
1904. 5. 17	목포신문(1장)	봉황성(鳳凰城)의 전투

창간한 것으로, 동일 제호의 국한문판과 일본판이 발행되었다. 『대한일보』(大韓日報)는 1904년 3월에 인천에서 창간되었으며, 사장은 일본인인 아리후 주로(蟻生十郎)이었다. 1906년 8월까지의 국문으로 간행되었다. 결국 김윤식은 국문 또는 국한문으로 기록된 일본인 발행 신문을 읽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두 신문의 개략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임경석 편(2010),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1815~1945』, 논형 참조.

일자	출처	주요 내용
1904. 6. 5	황성신문(13~16일)	알렉세예프의 사임과 러시아군의 약탈
1904. 6. 21	목포에서 온 사람	러시아 배가 일본 영사의 배를 공격했다는 소문
1904. 7. 12	황성신문(9~18일)	러시아의 일본 상선 공격
1904. 8. 20	대동신보, 대한일보	일본의 승전 소식
1904. 8. 25	황성신문(5~6일)	여순(旅順)의 해전
1904. 9. 26	황성, 대동, 대한	요양(遼陽)의 전투와 전사자 수
1904. 10. 8	황성신문(17~24일)	관북에 러시아 군사들이 왕래하여 소요가 있음
1904. 11. 1	대동신보, 대한일보	만주의 전투(양측 다수의 사상자) 독일, 프랑스, 미국의 움직임
1904. 11. 11	김유중(아들)	봉천(奉天) 일대의 악전(惡戰)
1904. 12. 10	황성, 대동, 대한	대한제국 군대의 관망과 일본군의 책망
1905. 1. 11	황성신문(30~2일)	러순 함락과 항복한 장군 스테셀의 자결 <sup>28)</sup>
1905. 2. 3	대동, 대한	봉천에서의 결전 준비
1905. 2. 8	황성신문(25~28일) 대동신보, 대한일보	러시아 국내의 반란(자유당, 허무당 등)과 공장 파업 정부의 대책 실패와 피난설, 핀란드 등의 독립 요구
1905. 2. 10	목포에서 온 사람	일본의 상선 징발
1905. 2. 17	황성신문(6~7일)	훈하(淸河)에서의 일본 승리
1905. 3. 22	세 신문 <sup>29)</sup>	봉천 함락
1905. 3. 27	대동, 대한	러시아의 연패와 내란의 발생
1905. 4. 4	황성, 대동, 대한	일본의 개원(開原) 점령
1905. 4. 21	세 신문	대해전의 조짐
1905. 4. 24	세 신문	러시아 함대의 이동
1905. 4. 27	세 신문	발틱 함대의 이동과 일본의 대비
1905. 5. 27	김윤식(목격)	러일전쟁 화보를 보여주며 돈을 받는 사람
1905. 6. 3	목포	발틱 함대의 패전과 일본의 환호
1905. 6. 7	세 신문	발틱 함대의 패전



일자	출처	주요 내용
1905. 6. 14	세 신문	일본의 해전 승전보
1905. 6. 19	세 신문	러시아 황제의 통곡, 영국과 미국의 강화 주선
1905. 7. 20	세 신문	강화 담판의 대표와 일정 확정
1905. 9. 1	세 신문	강화 담판 미결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 조항 확정
1905. 9. 13	황성, 대한	강화 담판과 일본 내에서의 불만
1905. 9. 16	대판매일신문	강화 담판에 대한 일본에서의 불만과 구미에서의 칭송
1905. 9. 27	황성, 대한	강화조약과 일본에서의 반응(화약문 요약 제시)

이 정보들 가운데는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통해 우선 전쟁 상황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일기에 나타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러일전쟁은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보도 통제와 검열에 관여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했는데, 일본군의 움직임을 보도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그 직접적인 이유였다.<sup>30)</sup> 따라서 당시의 신문 기사는 적어도 내부 검열은 거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황에 대한 기사나 소문을 일기에 옮겨놓은 사례는 적지 않게

28) 스테셀(Anatoli Mikhailovich Stessel)이 자신의 병졸과 생명을 구해 줄 것을 청하는 항서(降書)를 보내고서 화약고에 불을 붙여 자결했다고 하였으며, 그 충勇에 대한 칭송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뒤에 들으니 죽지 않았다고 한다(追聞不死)”는 주석이 붙어 있다.

29) “세 신문”[三新聞]을 보았다는 기록이 이하에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이는 『황성신문』, 『대동신보』, 『대한일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는 일기의 기록에 따라 “세 신문”으로 표기한다.

30) 정근식(2003),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 1904~1910』, 『사회와 역사』 64, 한국사회사학회, pp. 11-12; 정진석(2008),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pp. 23-30. 1904년 3월 1일에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가 『황성신문』의 기사를 지적하면서 ‘충분한 취체법(取締法)’을 만들도록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이는데, 이는 대한제국이나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전쟁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해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sup>31)</sup>

일기에 옮겨진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일본 측에 유리한 정보, 또는 일본의 시각에 가깝게 어느 정도 편향된 정보가 많다는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일본인들의 거주지와 가깝다는 지도(智島)의 지리적 특성과도 관련된 것일 수 있다. 함께 유배 생활을 하던 정운복(鄭雲復)이 일본어를 할 수 있고 일본인들과 친분이 있었으니, 그를 통하여 김윤식이 일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보를 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또한 『황성신문』에 일본에서 유입된 정보가 실리는 일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sup>32)</sup> “목포의 신문”을 비롯하여 여기에 언급된 신문들은 일본인들이 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개전의 경위와 세부적인 전황이 일본 측의 시각에 의한 묘사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실제 일본군의 패전 또는 고전의 소식을 전한 예는 상당히 드물어서, 아들인 김유증이 전해준 봉천 지역에서의 어려운 전투 소식(1904. 11. 11) 정도가 예외적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악행을 저질러서 배척받는 러시아군과 엄정한 군기를 지켜서 칭송받는 일본군이 대비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데, 이 또한 기본적으로는 정보의 출처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미지가 이미 자리 잡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정보가 유입될 때보다 자연스럽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김윤식 자신의 견해나 발언에서 그러한 사

31) 일본군의 검열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문이 전황 관련 보도를 계속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실제 이 당시의 검열과 관련하여 최초의 신문 정간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는 1904년 8월 13일에 일본인이 간행하던 『대동신보』에 내려진 정간 명령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근식(2003), p. 12.

32) Vladimir Tikhonov (2014), p. 8.

례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논리적 근거가 더해질 수 있다. 당시에 널리 퍼진 견해 가운데 하나인 ‘전제국’(專制國)에 대한 부정적 이해가 그것이다. 다음은 개전 초기에 정운복이 전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서술한 부분인데, 이는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럽의 전제군주국으로 정치가 부패하였으며 오직 남의 토지를 탐하는 성질만은 대대로 지키고 변하지 않으니, 만국이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바이다. 이제 일본과 전쟁을 시작하니, 누구도 그들의 패배를 불행히 여기지 않으며 다투어 일본인을 돕는다. 일본인의 이 전쟁은 가히 세계 초유의 의전(義戰)이라 일컬을 만하다.<sup>33)</sup>

남의 토지를 탐하는 본성을 여전히 가진 ‘부패한 전제군주국’이 곧 러시아의 구체적인 이미지인 셈이며, 그러한 러시아와 결전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는 셈이라는 구도가 여기에는 정확히 드러난다. 같은 날의 일기 서두에서는 “미국의 워싱턴 사람들은 모두 일본의 이 거사[개전]가 세계의 공전이라고 여긴다.(美國華盛頓人, 皆以日本此舉, 爲世界公戰.)”고 하였는데, 이 또한 일본이 세계를 대표하여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한국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보호국’이라는 결말이 서구에서, 그리고 서구를 인용하는 일본인들에게서 거듭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소문에 대해 탄식하기는 하지만, 결국 김윤식이 이른 시기부터 한국의 보호국화에 이르는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타개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닥쳐올 현실에 대한 무력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속음청사』하 1904년 3월 2일, p. 81. “俄國爲歐洲專制君治之國, 政事腐敗, 獨其貪人土地之性, 世守不變, 爲萬國之所仇疾. 今與日本開戰, 人無不幸其敗北. 爭助日人, 日人此戰, 可謂世界初有之義戰.”

### 5.3. 러시아의 내부 사정과 혁명

『음청사』에서는 개전 초기부터 일본의 승리와 러시아의 패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의 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닐 가능성은 정보의 출처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황에 따른 러시아 내부의 상황 변화에 대한 묘사 또한 사실과 부합한다고 믿기는 어려울 수 있다. 패전으로 인한 황제와 국민들의 분노 및 절망감, 황제가 직접 전장에 나갈 것이라는 친정설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으며, 러시아 국내에서 반란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언급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당시의 러시아 사정과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으로 전쟁에 패배한 국가 내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것들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김윤식이 신문 등에서 얻은 러시아 국내의 소식 가운데 패전의 결과로 예상할 만한 사건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일기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러시아에서의 반란의 조짐과 관련된 서술은 세 번 정도 보이는데, 그 가운데 둘은 전쟁 초기의 일을 기록한 대목에서 보인다. 뤼순에서 패배하고 여러 나라가 중립을 선언하여 러시아 함대가 쫓겨나게 되니, 각지에서 반란을 생각하고 조정에서는 두렵게 여긴다고 하였으며(1904. 3. 4), 하얼빈이 위태롭게 되니 러시아 수도의 여론이 악화되고 “반드시 내란이 발생할 것(必生內變)”이라고 했다(1904. 5. 8).

한편 러시아의 패전이 거의 굳어진 시점에서는 실제의 내란이 발생했다는 서술이 나타난다. 다음은 1905년 3월 27일의 일기 가운데 한 부분이다.

10일부터 14일까지의 『대한일보』와 『대동신보』를 읽었다.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인이 연달아 패하였다. 훈허강[渾河]이

단단히 얼어붙자 일본군이 바로 건너와 사면으로 공격하여, 봉천, 무순, 철령, 흥경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20여만 명이고, 내버린 군기와 음식이 산처럼 쌓였으며, 일본군이 승세를 타서 계속 몰아갔다.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진동하고, 내란이 어지럽게 일어났다. 그러나 러시아 황제는 오히려 전쟁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며, 병사 30만을 뽑아 동쪽으로 와서 옛날의 위명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한다.<sup>34)</sup>

러시아의 세력권에 있던 만주 지역의 도시들이 차례로 점령당했고, 패배한 러시아군은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거론된 ‘내란’은 1905년 러시아 혁명에 해당될 것인데, 그 묘사는 앞서 개전 초기에 “반드시 내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한 부분과 큰 차이가 없다. 또 러시아 황제의 친정설도 또한 전쟁 초기에 언급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여기에서의 서술은 패전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예상되고 이해될 만한 수준의 ‘내란’으로 혁명을 이해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음침사』에서 러시아 혁명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05년 2월 8일의 일기에서는 자유당과 허무당, 그리고 노동자와 학생들의 소요와 파업을 언급한 바 있으니, 혁명의 상황에 대한 보다 진전된 서술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일부터 28일까지의 『황성신문』을 읽었다. 『대한일보』와 『대동신보』도 각기 4장이었다. …… 러시아에서는 뤼순이 함락된 이후로 온 나라의 민심이 크게 끓어올랐다. 자유당, 허무당 등과 노동자, 학

34) 『속음침사』하 1905년 3월 27일, pp. 132-133. “閱大韓·大東兩報, 自初十日至十四日. 日·俄戰事, 俄人連敗, 渾河水堅, 日兵直渡, 四面蹙之. 奉天·撫順·鐵嶺·興京次第占奪, 俄兵死傷二十餘萬, 所棄軍火食物山積, 乘勝長驅, 彼得震動, 內亂紛起. 然俄帝猶堅執續戰, 調兵三十萬東來, 冀復舊日威名云.”

생들이 도처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공장들은 파업 동맹을 하였는데, 모두가 정부의 압제에 허물을 돌렸다. 러시아의 황제가 부득이하야 바야흐로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데, 백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의 권리를 주었다. 그렇지만 소동은 더욱 심해져서, 잇달아 죽이는 데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황제와 태후가 피난했다는 설이 나오기에 이르렀으며, 또 핀란드와 폴란드는 이 틈을 타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전한다.<sup>35)</sup>

앞서 살펴본 3월 27일의 일기와 비교해 보면, 약 50일 전의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구체적인 상황과 명칭을 기록한 점이 인상적이다. 러시아 황제를 비롯한 정부의 대책과 그 실패, 그리고 러시아에 예측되어 있던 핀란드와 폴란드의 국권 회복 문제에 대한 언급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진전된 이해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의 출처인 1월 25일에서 28일까지의 『황성신문』 기사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시점의 ‘외보’(外報)란에는 러시아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러시아의 내부 상황 특히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한 기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 5]는 해당 기간 동안의 『황성신문』 외보란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35) 『속음청사』하 1905년 2월 8일, p. 129. “閱皇城新聞, 自二十五至二十八日. 大韓日報·大東新報各四張. … 俄國自旅順陷落以後, 舉國民情大沸, 自由·虛無等黨, 勞動者學校生, 到處起鬧, 各工廠罷工同盟, 皆歸咎於政府壓制. 俄皇, 不得已方欲改革政治, 從民所願, 與以自由之權. 然騷動猶甚, 誅戮相繼, 莫可禁止. 至有皇帝及太后避亂之說. 芬蘭·和蘭又欲乘時復國云.” 원문의 “네덜란드”[和蘭]는 명백한 오류이며, “폴란드”[波蘭]를 오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波”를 “和”로 잘못 탈초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여기서는 고쳐서 인용한다.

[표 5] 1905년 1월 25~28일자 『황성신문』의 ‘외보’란 기사 요약

날짜	기사 제목	주요 내용
1월 25일	日軍의 公報	일본 기병의 승전
	俄國의 豫算	[런던] 러시아의 1905년 예산 감축
	日本艦隊의 根據地	[런던] 일본 함대의 인도양 근거지 선언
	美國의 對淸策	미국의 청국 문호개방과 영토보전 보증
	俄國의 通牒	러시아에서 일·청의 締約으로 인한 중립위반 통첩 → 독일은 접수 거부, 미국은 조사 착수
	俄國의 八大革命黨	[독일신문] 러시아의 8개 혁명당이 선언서 발표
1월 26일	俄京의 革命運動	[大韓日報東京電] 15000명의 청원, 군대와 혁명당의 충돌, 황궁 발포 사건, 사상자, 해군공장 파업, 황제·황태후의 피난
	日俄大戰의 臨迫	[營口電] 러시아군 부상자 매일 200~300명 운송
	法國新聞의 所論	[베를린] 프랑스 신문의 ‘청국 중립 문제’에 대한 의견
	俄國貴族의 會議	모스크바에서의 귀족회의 → 황실 藩屏으로 협력 결의 부결, 議院 설립 청원 결의
	英法協定の 說	[베를린] 파리 발행 신문에서 ‘영불협정’ 공포 보도 (만리장성 이복의 러시아 領有 승인 포함)
	馬賊의 募集	러시아 군대가 전선 보호를 위해 만주의 마적을 고용
1월 27일	俄都革命運動	[大韓日報東京電] 살육, 화재, 흥흥한 인심. 철공장과 해군공장의 파업, 水兵의 폭동과 진압군의 발포 거부
	淸廷의 辨明	러시아의 통첩(중립 위반 5개조)에 대해 청국에서 날조 또는 오해라는 취지로 각국에 변명하게 함
	日軍의 公報	[日軍의 公報] 일본군의 야습 성공과 戰果
	波艦東行說	발틱 함대가 마다가스카르를 지나 航行할 것이라는 소식
	大艦新造	일본에서 裝甲巡洋艦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
	日軍의 戰利砲	일본군이 旅順에서 얻은 대포 546문
	遼西中立과 日本	러시아군이 遼西를 거쳐 기습한 까닭에 일본에서 청국에 중립 유지할 것을 경고함